

제1회 세일 한국가곡 콩쿠르 본선 연주회 개최



▲ 세일문화재단은 지난 6월 1일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 제1회 세일 한국가곡 콩쿠르 본선 연주회를 개최했다.

세일음악문화재단[이사장 정승일, 대한설비건설협회 명예회장(세일이엔에스(주) 대표이사)]은 지난 6월 1일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 제1회 세일 한국가곡 콩쿠르 본선 연주회를 개최하고 대상에 바리톤 윤기훈씨를 선정했다.

국내 가곡 역사상 최대인 5,200만원의 상금이 걸린 이 콩쿠르는 지난 4월부터 6월 본선무대 까지 작곡부문

42명을 포함, 총 100여명의 젊은 음악가들이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.


본선에서는 작곡부문 5명, 성악부문 남·여 각각 7명이 최종 경합을 벌여 대상 포함 총 8명의 최종 입상자가 선정됐다.

정승일 이사장은 “고단한 시절 우리 국민을 위로했던 가곡이 점점 사라져 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”며 “젊은 성

악가들이 활동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해 주고 싶다”고 콩쿠르의 취지를 설명했다.

정승일 이사장은 또 “침체에 빠진 한국 성악 발전을 위해 인생 3막을 바칠 것”이라며 “콩쿠르 우승 학생이 외국과 국내 오페라 무대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”고 밝혔다.

한편 이날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은 한국가곡 연주회를 기다려온 음악 애호가들을 비롯한 참가자의 응원단 등으로 발 디딜 틈 없었고 유료좌석은 며칠 전부터 매진돼 표를 구하지 못한 관객들은 아쉬움에 발걸음을 떼지 못하는 등 수준 높은 연주회 및 콩쿠르에 대한 음악인들의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.

제1회 세일 한국가곡 콩쿠르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. 

△ 제1회 세일 한국가곡 콩쿠르 입상자 명단

전체 대상		
윤 기 훈	Baritone, 한양대학교 졸업	
성악 남자부문		
2위	김 영 우	Tenor, 추계예술대학교 대학원 재학
3위	장 철 준	Baritone, 단국대학교 졸업
성악 여자부문		
1위	김 지 은	Soprano, 연세대학교 졸업
2위	최 정 원	Soprano, 경희대학교 졸업
작곡부문		
1위	이 원 주	한양대학교 대학원 졸업, '베를노래'
2위	강 택 구	한국예술종합학교 4학년, '저녁에'
3위	강 태 속	한양대학교 대학원 졸업, '농무'



▲ 시상식 후 정승일 이사장(사진 앞줄 오른쪽 다섯 번째)은 수상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.